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 8 | 제163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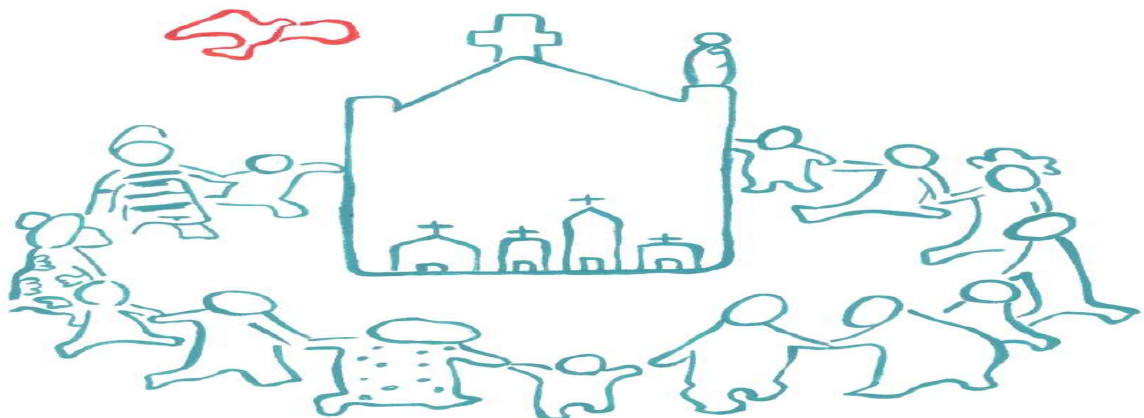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 20주일 (8월 14일)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53)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나는 불을 지를 만큼 열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금을 가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금을 용기에 넣고 불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가열을 한다.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는 사람이 금 가공 장인에게 "지금도 충분히 금이 녹은 것 같은데, 왜 불을 계속 가하냐" 라고 물어봤다. 그 말에 장인은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빛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타버리죠. 그래서 더 뜨겁게 불을 가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질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불을 지르시려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불순물들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 주님을 저주하는 마음을 다 태워버리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빛을 내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고 싶으신 주님만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연중 제21주일 (8월 21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루카 13,22-30)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 나누기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루카 13,24)

나는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고 싶어하십니까?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루카 13,25)

닫힌 문을 열기 위해 그저 소리만 치며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나치거나 외면하기는 쉽지만 따르기는 어렵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기는 쉽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란 참으로 힘들다. 길을 가는 여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좁은 길이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지를 따름을 증언하는 길, 원수까지 포함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다. 이 땅에서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에는 더욱 좁은 길이다. 타인의 약함과 한계와 불의를 마주하며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은 좁은 길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때,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불신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정말 좁은 길, 아니 불가능한 길이다. 앞서가시는 당신이 아니라 나의 허약함을 먼저 볼 때 이미 위험에 빠져 발밑이 흔들리는 길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나를 한 걸음씩 이끄시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한 걸음씩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이고, 그렇게 당신을 볼 때에만 끝내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다. 당신 자신이 고난의 길이지자 좁은 문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신만을 찾습니다." (D. 본 회퍼)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1번 "주를 찬미하여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석전동성당 소공동체

+ 평화를 빕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려니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네요. 십 년만에 다시 구역분과장을 맡게 되어 벅차옵니다. 예전 구역분과장 시절에도 신부님의 도움과 각 반장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맡은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구역분과장을 맡고 보니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지오와 소공동체, 신심단체의 활동이 중단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수녀님과 함께 몇몇이 자비기도와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체조배를 하며 기도만이 살길이라 생각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신부님과 미사 후 다과와 차를 마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본당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에 성령칠은 뽑기도 하고 모범구역인 1구역 1반에서 오랜만에 소공동체 모임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웃에 살면서도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어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웃고 못다 한 이야기도 하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소공동체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1구역 1반에서 매달 환자 방문과 주변 청소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가정미사와 봉성체도 신부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셔서 저는 신바람이 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19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한다)를 외쳐봅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반장님들과 반원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 -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실현

소공동체는 그 자체로 교회이며 지역 사회 안에서 보편 교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소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이상으로서 규정한 네 개의 현장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현실 안에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전례의 중요성과 전례를 통한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한 '전례 현장', 하느님 백성의 친교로서 공동체성을 강조한 '교회 현장',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강조한 '게시 현장',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인간 구원을 위한 사회 속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목 현장'입니다. 따라서 공의회 문헌의 네 개의 현장이 강조하는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목 현장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소공동체에는 교회성을 드러내 주는 고유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소공동체가 도입되던 초기부터 룬코 연구소에서 제안했던 소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로 교회의 여러 다른 단체 또는 일반 공동체들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소공동체로 규정하는 네가지 요소는 첫째 이웃을 기반으로 삶의 자리(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이고,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은 말씀(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눔을 하며, 셋째 교회 공동체 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며, 넷째 교도권의 가르침과 전례를 통하여 보편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는 강조점들을 통하여 어떻게 소공동체가 공의회의 전망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원리와 방향, 운영과 실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